

서론, 설교자의 악몽: 나는 크리스천인가?

A. 주제(Thesis)

-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으로 책임적이고, 지적으로 정직하며, 정서적으로 만족시키고, 동시에 사회적 의미에서 중요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(18).

B. 문제점(Problems)

- 나는 크리스천인가? 자신의 꿈을 분석. 이라크 전쟁상황. 정치인들은 전쟁을 정당화. T.V. 대중 설교자들은 마지막 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과 저주받은 사람으로 구분. 역시 전쟁에 면죄부를 준다 (cf. 십자가 전쟁) => “근본주의의 횡포”(17).
- 교회가 하느님에게만 관심이 있고, 그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인지, 곧 예수는 어떤 종류의 하느님을 계시했는가는 묻지를 않는다.
- 대부분의 자유주의 교회들도 기성 교회의 해체를 기뻐할 뿐, 교회를 ‘재구성하는 일’에는 실패했다.

C. 논점(Argumentation)

1. 저자는 자신의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(무의식, 참나)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의미를 분석한다.
 - 꿈은 무의식의 물속에서 몸부림치는 자아의 보다 깊은 모습이다(15).
 - 꿈은 자아를 고발한다. “왜 나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키고, 또한 우리 시대에 교회가 다른 대안적인 존재 방식이 되도록 인도하는 일에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는가?”(16).
 - 미국 남부 보수주의 지역에서 높은 교회 출석률에도 불구하고, 십대 임신, 이혼, 육체적 및 성적 학대, 약물중독과 같은 부정적인 통계 등장. (cf. Ronald Sider, *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Conscience: Why Are Christians Living Just Like the Rest of the World?* 2005)
 - 반복적인 문구. 만일에 이것이 기독교이며 이들이 크리스천들이라면, 나는 그들 중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.
 - 천민자본주의. 시민들은 별로 없고, 소비자들만 넘쳐난다=> 광고를 통해 희생(소비)을 요구.
2.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한다.
 - ‘교회 탐색자’들은 기존의 교회로부터 유배된 상태이다. 교회가 대안적인 비전을 제시하기까지 그들은 교회로 되돌아갈 수 없다.
 - 오늘날 교회의 허구들 가운데 하나는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 상관 없다는 주장이다(19). 아니다! 신학은 매우 중요하다.
 - 조직화된 종교로서의 아닌 교회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길(‘The Road Less Traveled’ by Scott Peck), 변혁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.
 - 이를 위해 4세기 이전, 곧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.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자가 아니라,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(22-23). 이런 의미에서, 이 책은 예수를 제국의 시녀가 된 교회로부터 구출하라는 메시지를 보낸다.

D. 평가(Critique).

- 저자가 말하는 ‘자아’는 무엇인가?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.

1 장, 예수: 구세주가 아니라 선생

A. 주제(Thesis)

- 예수를 따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? 이 책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(26).
- 최상의 종교는 경전에 대해 책임적이고, 지적으로 정직하며, 정서적으로 만족시키고, 동시에 사회적으로 의미 있어야 한다(38). “biblically responsible, intellectually honest, emotionally satisfying, and socially significant”

B. 문제점(Problems)

- 우리 시대에는 지혜를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, 교회는 오히려 두려움을 심어주었다. 반(反)지성주의로 점철된 근본주의 기독교의 토대는 신앙이 아니라 공포심이다.
-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약속이 아니라, 교회라는 기관이 약속한 이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들을 믿기로 동의한 사람들이다(27).

C. 논점(Argumentation)

1. 교리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지만, 제자도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다(26).
 - 산상설교는 교리에 대해 말하지 않고, 행동에 대해 가르친다. 그러나 4세기 이후 등장한 교회의 신조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정하는데 온 힘을 쏟았고, 그 결과 교회의 분열을 초래했다.
 - 올바른 신앙은 믿음체계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‘에고(ego)의 정복’과 함께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요구한다 => 마커스 보그의 신앙(faith)에 관한 4번째 정의. (동의, 신뢰, 충실함, 보는 방식)
2. 성서에 대한 역사적 이해
 - 공관복음서(마태, 마가, 누가)는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, 부활절 이전의 인간 예수(역사적 예수)와 부활절 이후에 등장하는 신(초자연적 그리스도)에 대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이해를 보여준다. => 이 책에서 로빈 마이어스는 ‘예수’를 갈릴리 출신의 농부(?)로 제한하고, ‘그리스도’라는 칭호는 신적 구세주(요한복음)로 한정한다.
 - 역사적 예수 연구에 기여한 신약학자들의 주장에 기초한다. (슈바이처=> 예수 세미나). “성경학자들은 신화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캐내는 사람들이다”(33).
 - ⇒ 복음서들은 예수 사후 40년에서 70년이 지난 시기에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당시 상황에 맞추어 개작되었다.
 - ⇒ 도마복음은 1945년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된 예수의 어록집이다. 그 안에는 예수의 행적, 기적, 십자가 처형, 부활 이야기가 없다.
 - ⇒ 신약성서 속에 포함된 네 개의 복음서는 많은 복음서들 중에서 선별되고 ‘승인된’ 복음서이다. 이를 기초로 다른 복음서들을 외경으로 분리하거나 삭제해 버렸다. (이런 단순한 사실조차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있다.)
 - 신약성서(특히 복음서들)는 정체성 형성을 위해 마련된 초기 신자들의 예배 의식서다. (70년대 이후 바리새파의 가르침과 구별). 여기에 도입된 유형론(typology)은 신약성서 안에서 구약성서에 기록된 유형을 찾아 비교하는 것이다. 예) ‘새로운 아담’(New Adam); 교회의 모세(마태복음 2장)
 - 4 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인 것은 마가복음이고, 그 다음이 마태와 누가복음인데 거기에는 예수의 탄생설화가 실려 있다. 가장 나중에 쓰인 요한복음에 따르면, 예수는 창조 이전부터 신적 존재로서 구원을 위해 인간 세계로 내려온다.

- 4 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와 마트라교(태양숭배)를 정치적 이유로 결합시켰다.
3. 예수를 따르는 것과 예배하는 것의 차이에 관하여
- 예배하는 사람은 삶의 변화나 희생을 요구 받지 않고, 다만 감정적이고 자기만족적이다.
 -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생전에는 ‘신의 아들’로 그리고 사후에는 ‘신들’로 불리었다. 문제는 농민 계급인 예수가 신격화되었다는 점이다. 같은 이유에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라, 예수가 그 대상이라는 주장이 기존 체제에 전복적이다.
 - 예수는 믿는 방식이 아니라, 존재 (삶)의 방식을 가르쳤다.

D. 평가(Critique).

- 저자가 말하는 ‘믿음’이란 무엇인가?(사실 이 책 2 장의 주제이다.)
- 저자는 종종 ‘그리스도’를 신적인 존재로 표현한다. 예) 선재하는 “신적인 구세주(savior)”(29, 34). 이런 이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?
- 저자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거듭 말한다. 그런데 행동의 근원이 되는 믿음(가치관) 없이 무엇을 행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?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?